

『왕능전』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노영근*

— <차 례> —

1. 서론
2. 『왕능전』 자료 개관
3. 작품개관
4. 『왕능전』의 설화 수용양상
5. 민담차용의 원리

<국문초록>

『왕능전』은 주요한 삽화의 구성에서 설화가 사용되고 있다. <구룡담> 유형과 <진가쟁주담> 유형이 그것인데, <구룡담>과 <진가쟁주담>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소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구룡담>은 기존 왕권의 옹호 및 회복이라는 보수적인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영웅소설인 『왕능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작품의 주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진가쟁주담>은 인물의 개심삼화를 구성함으로써 유교의 수신원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구룡담>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설화는 소설이 지행하는 이념과 주제에 부합함으로써 소설형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즉, 장르를 초월하여, 서사적인 지향의 동일함이 서사의 상호 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반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주제어 왕능전, 구룡담, 진가쟁주, 소설화, 옹고집전, 영웅소설, 군담소설.

* 국민대

1. 서론

설화와 소설은 분명 다른 장르이면서 동시에 같은 장르이다. 즉, 설화와 소설은 서로 서사문학 또는 이야기 문학이라는 공통적인 영역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각 구술성과 문자성이라는 상이한 바탕을 갖고 있다. 문자는 구술을 보조한다는 애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구술과는 다른 논리체계를 생산해냄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자가 창조해 낸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질서로 이뤄져 있으며,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구술과 동일한 위상을 확보하며 발전한 문자는 이후 구술을 지배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다. 현전하는 구술서사물이 일정 부분 문자에 기반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구술이 구축하는 세계가 문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전통사회라 일컬어지는 조선조를 비롯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술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체계는 그 사회의 지배관념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자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내면화한 것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인 가상세계 역시 문자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문자를 동원한 구술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양자가 상호 지양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철저히 문자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문자기반세계의 극단적 형태라 하겠다.

구술성과 문자성이라는 상이한 바탕은 점차 구술이 문자의 자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정 부분 동질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양자 간의 상호간섭이라 할 현상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즉 소설과 설화와의 상호 관련이라는 새로운 지양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가 소설의 형성에 설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소설이 다시 설화화 되는 현상도 인정하고 있다. 일견 모순되

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구술과 문자가 형성한 영향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례를 우리는 「손없는 색시」 설화와 「연당전」의 관계에서 확인한 바 있다.¹⁾ 이는 설화와 소설이 형성하는 관계 중 설화가 그대로 소설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화가 소설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원설화 또는 배경설화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전체 서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기 보다는 단순한 상동성에 주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또는 한 유형의 설화가 소설에 차용될 때는 일정 정도의 의미변화가 수반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밀하게 고찰한 논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 하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두 가지가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설화 연구자의 시야가 소설까지 넓혀지지 않은 점과 다른 하나는 소설 연구가 특정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텍스트의 숫자와 관련되는 것으로 전자와는 다른 대안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고전작품의 발굴이 그것이다. 현재 858종으로 추산되는 작품 중 작품론에 해당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작품이 다수라는 점은 소설연구의 편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가 「왕능전」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즉, 형성 과정에서 설화의 개입이 삼화적인 차원으로 일어났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원리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심증에서다. 이는 설화와 소설이 맺고 있는

1) 김광순, 『『순금전』의 형성배경과 구조적 특징』, <고소설연구> 6, 고소설연구회, 1998.
 조희웅, 「손없는 색시(AT107)考」, 『수여 성기열박사 환갑기념 논총』, 인하대출판부, 1989.
 조희웅, 「구비설화, 문헌설화, 고전소설의 관계」, 『임석재 선생의 학문의 조명』, 비교민속학회, 2000.
 주종연, 『한독민담 비교연구』, 집문당, 1999.
 이윤경, 「『손없는 색시』 설화의 소설화와 그 의미」, <돈암어문학> 14, 돈암어문학회, 2001.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사의 확대 혹은 변이를 일으키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이로써 소설과 설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²⁾

2. 「왕능전」 자료 개관

「왕능전」은 현재 박순호 소장본이 유일하며, 월촌문헌연구소가 편찬한 『(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제 37권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매 쪽 12행 내외이고, 매 행 23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2쪽 분량이다. 서두와 결말이 훼손되어 있으나 현전하는 내용으로 미루어서 추정이 가능하다. 본문에 인물의 발화를 통해 요약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두의 내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왕공과 소씨 부인이 있었는데, 왕공이 조학의 참소로 아룡도에 적거된다. 이때 소씨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으나, 왕공과 소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하게 된다. 소씨가 홀로 지내던 어느날 구의산 백학사의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권한다.

결말 부분은 마지막 장의 약 1/3 정도가 훼손되어 이후 부분이 낙장된 채 전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후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부를 토대로 하여 ‘연왕이 결혼하고 자손이 번창하였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작품의 줄거리, 구조 등에 관한 연구는 김재웅(『<왕능전>의 영웅소설적 성격과 의미』, 어문학, 89집, 한국어문학회, 2005)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본고에서는 할애하였다. 다만 논지전개상 요구되는 줄거리와 구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작품 말미에 ‘尙州郡 化東面 陽地’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작품의 필사지이거나, 책 소유자의 주소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전자로 이해하는 것은 방각본 말미에 나타나는 지명이 간행지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방각본과는 달리 필사본에는 말미 부분에 책주인과 관련된 내용, 필사력과 필사자의 첨언 등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따라서 필사지로 보는 것보다는 책 소유자의 주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웅은 책 소유자가 아닌 창작지로 보고 현지답사를 통해 화동면 양지에서 언문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선비집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왕능전 은 양지리에 있던 선비집에서 창작되었다고 추정하였다.⁴⁾ 그러나 이 작품이 반드시 그 곳에서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가 필사본의 향유지이기에도 창작지도 그렇다⁵⁾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보인다. 경상북도가 필사본의 향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지역에서 필사본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만 필사본이 유통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책 소유자의 주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이 낭독으로

3)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필사력과 필사자의 첨언이 나타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남진 이월 초 오닐의 시죽호여 이십
일의 다 씨쓰되 오즈 낙셔되고 글시도 아
니되어 붓쓰럽노라 그더로 놀너 보시옵소서(「임경업전,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1, 오성사, 1986, 90쪽.)

江原道三陟郡於達面西下里七七番地
己巳三月初一日騰書終
昭和四年陰三月初一日騰書終
田中宅家
江原道三陟郡於達面西下里(「임진록」, 위의 책, 172쪽.)

4) 김재웅, 앞의 논문, 133-134쪽.

5) 김재웅, 위의 논문, 133쪽.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을에서 유일하게 언문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마을의 '선비'였기에 당연히 책 소유주도 '선비'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모두 정황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다. 창작지에 대한 추론은 작품에 내재해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뤄질 때 보다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작품에 중복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⁶⁾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전하는 것은 필사본으로서, 원본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전하는 작품은 다른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을 필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소설에 비해서 「왕능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설화의 변용을 통한 삽화구성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설의 작자(군)이 설화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의 창작지와 설화의 분포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삽화구성에 참여한 설화의 분포자와 창작지가 중첩될 가능성이 크므로, 설화의 분포지를 통해 창작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⁷⁾ 「왕능전」에는 두

6) 제 아[아]모리 독악나니(6쪽)

누를 사또라호오며 [누를 사또라호오며] 누를 안나라 호리오(31쪽)

지물을 과이[과이] 탐호엿던니(33쪽)

슈문니 가로데[디](50쪽)

범의 님을 각가이 하[하]올리가(51쪽)

사죽을 보전치 못해[하]고(60쪽)

충절을 극진이 하와[와], 사죽을 회복하압고(62쪽)

밍검으로 더부[부]러 디군을 이르고(99쪽)

북치 한번 치[치]면 군사 슈십 명식 간고지 음난지라(107쪽)

원슈 이리[이리]나 공중을 향호여 무슈이 절하고(108쪽)

7) 물론 「왕능전」 창작 당시와 지금의 이야기분포가 동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내의 정보를 통하여 창작지 또는 창작연대를 추

유형의 설화가 사용되고 있다. <구룡담> 유형과 <진가쟁주담> 유형이 그것이다. 각각의 분포지역은 다음과 같다.

퀴쫂도 모른다 :

강원 영월군 영월읍 / 강원 횡성군 갑천면 / 강원 횡성군 청일면 / 경기 강화군 양도면 / 경기 의정부시 가농동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경남 하동군 횡천면 / 경북 구미시 장천면 / 경북 상주시 낙동면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경북 예천군 호명면 / 대구시 / 전남 해남군 산이면 / 전남 해남군 해남읍 / 전남 화순군 동북면 / 전북 군산시 나포면 / 전북 군산시 대야면 / 전북 군산시 임피면 / 전북 남원군 금지면 /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 전북 정주시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 충남 공주군 유구면 / 충남 대덕군 신태진읍 / 충남 부여군 구룡면 / 충남 아산시 영인면 / 충북 영동군 황금면 / 충북 청주시 사직동 / 충북 청주시 탑동 / 충북 충주시 주덕면

구룡담 :

강원 강릉시 / 경북 상주군 공검면 / 경북 안동시 예안면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서울 도봉구 수유동 / 충남 서산군 지곡면 / 충북 청원군 남일면 / 황해도 은율군 은율면

이는 물론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지역에도 이들 자료가 전승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전국적인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 의하면, 두 유형이 일치하는 지역은 경북 영덕군과 경북 상주군이다. 따라서 경북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면 단위 지역으로 보면 영덕군 창수면이 두 유형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정하는 작업은 좀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롭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방법은 작품에 사용된 단어, 표기법, 역사적인 사실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설화분포를 통한 창작지 추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상주군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영덕군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한편 「왕능전」은 사건 전개에 따라 일자를 제시하는 편년체 서술방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여섯번 편년체 방식이 나타나는데, 작품에 제시된 년월과 전후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진니 낫낫치 기록하여 가지고, 티슈를 하죽하고 바로 아룡도 향하여 가더라. 티슈 몸을 감초고자 하여 이늘 빅운산으로 가니, 잇적는 삼월 망간이라. 빅화 다 지느고 녹음니 울울한디, 외로운 원슈니 습과람호고, 청청양유의 환우잉은 짝을 찾고(10-11쪽)

② 또한 문호의 옥을 감쥬고자 하여 짐쥬 소겨 왈, 유희년을 너 웃지 알니요? 그거시 반다시 시비 중의 장난흔 거시라. 웃지 부닌을 의심하리요호더라. 잇적는 병닌년 삼월 망간이라. 빅화 만발하고 월식이 휘황한디, 자시 동현의 안잣다가 심신이 살난하여 죽장을 집고 월흔의 비회하여, 후원의 올라가서 무심이 근일던니(27쪽)

③ 부닌이 이 마를 드르미 마음이 썰니더라. 잇적난 병닌 사월리라. 부닌이 잉타하신지 십사삭의 비로소 몸이 괴로오시던이, 이윅고 향기 두르며 아기를 탄성흔니 일기 괴남자라.

④ 이날부터 군마를 슈습하여 밋일 교장의 나아가 병법을 연습하더라. 각설 잇적난 계유 삼월이라 부닌이 왕능을 다리고 세월을 보니이, 왕능의 나히 님의 팔세라.(65-66쪽)

⑤ 왕공니 니날 목욕지게하고, 부닌으로 더부러 불전의 나아가 분향지빅하고 세존의 널부신 덕턱을 무슈이 축슈하시더라. 잇적난 무닌년 추구월리라 왕능이 부친게 엿자오디, 소자의 평싱 한이 도학의 머리를 베여 붓친의 원슈를 잡고, 또 디명을 회복하자 호엿삼던니(85-86쪽)

⑥ 잇흔날 상이 제갈현으로 하여금 단을 모호고, 톱일하여 왕능으로 디원슈를 봉하시고, 잔치를 비설하여 질기시더라. 잇딛는 계유 이월리라. 군사를

경고하니 경병 팔천니요, 명장이 육십여 년이라.(93쪽)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연월은 앞 사건이 아닌 뒷 사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서사 진행이 년월이 제시되는 부분 바로 앞에서 이전 사건의 진행이 끝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보면, 일견 편년체 기술을 하고 있는 듯한 부분은 실상은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기 위한 연결고리 또는 서사진행의 구분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각설’, ‘일일은’, ‘이때’ 등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편년체 형식은 다른 부분에 비해 의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과, ②에서는 그 성격이 약하게 보이지만, ③에서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④에서는 주인공이 수련을 시작하고, ⑤에서는 주인공이 출전하고, ⑥에서는 주인공이 정벌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생애 단계가 편년체 형식으로 구분지어짐으로써 서사적인 진행단계에 따른 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서술방식은 인물의 생애에 따른 서사진행에서 주인공의 생애를 두드러지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함으로써 작품과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작품개관

『왕능전』의 서사진행은 다음과 같다.

8)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간지’를 통해 창작년대가 ‘1866년에서 1921년 사이에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한 김재웅의 추정(김재웅, 앞의 논문, 134쪽)은 재고를 요한다고 하겠다.

- (1. 왕빈과 부인 소씨가 있었다.
2. 왕빈이 조학의 참소로 아룡도로 적거된다.)
3. 백학산 노승이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4. 조학의 동생 조걸이 왕빈을 죽이고 소씨를 취할 계락을 꾸민다.
5. 왕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6. 선동이 왕빈에게 나타나 선약을 주고 간다.
7. 왕빈이 사약을 먹고 죽은 채한다.
8. 사람들이 왕빈을 다른 시신들 사이에 던져놓는다.
9. 왕빈이 다른 시신의 옷으로 바뀌었고 시체 사이에서 밤을 보낸다.
10. 금능평 최공의 아들 최진이 부친의 시체로 오인하고 왕빈을 데려간다.
11. 바다를 건넌 후 왕빈이 정체를 드러낸다.
12. 왕빈은 백운산으로 가고, 최진은 아룡도로 간다.
13. 왕빈이 백운산 천세옹에게 의탁하여 지낸다.
14. 소씨부인이 삼촌집에 의탁해서 지낸다.
15. 어느날 꿈에 월광보살이 준 구술을 삼키는 꿈을 꾸다.
16. 조걸이 소씨부인을 납치하려 하인무리를 보낸다.
17. 구의산 대사가 소씨를 찾아와 대환이 있을 것이라며 함께 가자고 한다.
18. 대사가 여우로 가짜 소씨를 만들어 보낸다.
19. 왕빈의 하인들이 가짜 소씨를 데려간다.
20. 가짜 소씨가 왕빈의 애첩이 된다.
21. 가짜 소씨의 작변으로 조걸이 딸과 동침한다.
22. 가짜 소씨가 모략하여 조걸이 정실부인 유씨를 쫓아낸다.
23. 가짜 소씨가 정실이 된다.
24. 어느날 조걸이 방에 들어가자 가짜 조걸이 누워있다.
25. 조걸의 어머니, 유씨 등이 나서나 분별할 수 없다.
26. 송사를 시켜서 판별하기로 한다.
27. 가짜 조걸은 전처럼 판별하고, 진짜 조걸은 바르게 판결한다.
28. 비장 조태가 가짜 조걸을 진짜라고 판정한다.

29. 진짜 조걸이 갖은 고문과 자신이 남에게 행한 폐약을 그대로 당한다.
30. 조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애걸하자 가짜 조걸이 사라진다.
31. 조걸이 새사람이 되어 선정을 베푼다.
32. 왕능이 태어난다.
33. 조학이 조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국가일을 자신이 결정한다.
34. 조걸이 조학에게 간언하나 듣지 않는다.
35. 조걸이 서계숙과 함께 조학을 없앨 계교를 정한다.
36. 도망한 자술이 우연히 백운산에 찾아온다.
37. 왕빈이 자술에게 소씨 소식을 듣고 의혹이 심하다.
38. 조걸이 조학을 없애기 위해 서계숙과 함께 군사를 일으킨다.
39. 조학이 왕후와 태자를 옥에 가두고 왕위에 즉위한다.
40. 어전사령 백수문이 자신의 아들 백만을 변복시켜 태자와 바꾼다.
41. 환자 육기와 함께 태자를 모시고 성을 빠져나와 축군으로 향한다.
42. 다음날 조학이 백수문의 아들들 태자로 알고 죽인다.
43. 조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을 해산하고 서계숙과 함께 은거한다.
44. 조학이 국호를 완으로 고친다.
45. 태자 일행이 구봉산을 지나는데 백호가 나타나 말을 물어 간다.
46. 선동이 나타나 앞일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고 사라진다.
47. 일행이 봉천대에서 은거하고 있는 위국 효성공을 비롯한 충신 무리를 만난다.
48. 축군 제갈현에게 편지하여 맞으러 오게 한다.
49. 제갈현의 제안으로 모두들 축군으로 옮겨 가 명나라를 회복할 준비를 한다.
50. 왕능이 8세가 되자 대사가 문무를 가르치자 무불통지한다.
51. 대사가 왕능에게 명나라 운세가 장원한 것과 태자 서촉에 있음을 알려 준다.
52. 대사가 용마를 불러내자 왕능이 말을 제압한다.
53. 왕능이 용마를 타고 세상으로 나간다.

54. 조학이 왕후를 아룡도에 적거한다.
55. 운주 추향산에서 조걸 일행이 왕후를 구출한다.
56. 태자 소식을 들은 조걸이 서계숙과 약속을 정하고 기병하러 운주로 간다.
57. 태자가 축군 제갈현의 딸과 결혼한다.
58. 왕능이 금능에서 왕빈의 호패를 팔러 나온 최진을 만난다.
59. 왕능이 그간의 사정을 듣고 왕빈을 찾아 떠난다.
60. 도중에 노랫소리를 듣고 백운산으로 향한다.
61. 천세옹이 약초를 캐는데, 거북이가 나타나 상천비수가 된다.
62. 왕능이 백운산에 찾아와 왕빈을 만난다.
63. 대화를 하면서 서로 부자지간임을 확인한다.
64. 천세옹이 왕능에게 상천비수를 준다.
65. 부자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이 다시 모인다.
66. 왕능이 사직을 회복하기 위해 태자가 있는 서촉으로 출발한다.
67. 무림산에서 두 장수가 싸움하는 광경을 본다.
68. 그날 밤 울지덕이 나타나 동철과의 싸움을 도와달라고 한다.
69. 다음날 왕능이 울지덕을 도와 동철을 물리친다.
70. 울지덕이 음신갑을 왕능에게 준다.
71. 왕능이 서촉에 도달했을 때, 진중에 백호가 달려들어 날뚫는다.
72. 왕능이 신검으로 백호를 제압한다.
73. 왕능이 태자와 지난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장군이 된다.
74. 태자가 기병하여 남경을 지나 서주로 향한다.
75. 조걸이 맹검과 기병하여 강도를 지나 강서로 향한다.
76. 조학이 이 소식을 듣고 친정에 나선다.
77. 왕능이 태자와 함께 황성을 점령하고 조학의 가족을 옥에 가둔다.
78. 태자가 조걸을 도우러 왕능을 보낸다.
79. 구봉산 도사가 동철에게 천의를 거스르지 말라고 당부하다.
80. 동철이 상의없이 전장으로 나간다.

81. 조학의 장수 조충과 조명서가 차례로 죽는다.
82. 조걸에게 설용태가 합세하고 왕능이 오기를 기다린다.
83. 설용태가 조학의 아들 조봉의 팔을 자른다.
84. 그 순간 동철이 조학에게 합세한다.
85. 동철이 신술을 부려 조걸의 군대가 위기에 처한다.
86. 왕능이 남진이 위기임을 알고 달려온다.
87. 구의산 대사가 전해준 봉서에 따라 동철의 신술을 막아낸다.
88. 왕능이 죽어가는 군사들을 약수를 먹여 회복시킨다.
89. 왕능이 조걸을 용서하고 더욱 충성하게 한다.
90. 왕능이 동철과 싸우나 승부가 나지 않는다.
91. 조학이 동철을 몰래 황성으로 보낸다.
92. 왕능이 천기를 보고 위급함을 알게 된다.
93. 왕능이 계교를 정하고, 도사가 보내준 봉서에 따라 축지법을 써서 황성으로 간다.
94. 왕능이 동철보다 먼저 황성에 도달하여 기다린다.
95. 동철이 왕능을 보고 도망하다 계교에 빠진다.
96. 동철이 불에 타 죽게 되자 구봉산 도사가 나타나 구해 데려간다.
97. 왕능이 조학을 결박하여 황성으로 돌아간다.
98. 조걸의 공으로 조학은 서인이 된다.
99. 왕능은 연왕이 되고, 왕빈은 태상왕이 된다.
100. 모두들 공에 따라 직첩을 받는다.
101. 구의산 대사, 천세웅, 울지덕이 나타나 무구를 돌려받아 간다.
102. 왕능이 고향을 다녀온다.
103. 천자가 위왕의 딸과 왕능을 혼인시킨다.

이들 서사는 왕능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왕능의 탄생 전(1.-31.)과 후(32.-103)로 서사가 구분되고 있다. 1.-31.의 서사는 왕빈가족의 이산과 조걸의 개심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왕

빈가족의 이산은 간신의 참소와 그로인한 적거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타 고전소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부인의 자살시도와 시비의 만류 등 후반부에서 요약진술되는 내용으로 미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고전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거된 왕빈이 선동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계략을 써서 적거지를 탈출하여 선계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설적 재미라는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롱도’라는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백운산’이라는 선계에 왕빈이 있게 함으로써, 후에 이뤄지는 왕능의 아버지찾기 여정에 환상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또한 왕능의 선계여행은 아버지를 찾음과 동시에 무구획득의 과정을 겸함으로써, 성장담적인 의미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왕능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서사적 특징으로 악인의 개과천선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인물들이 애초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왕능전」에서는 악한이었던 조걸은 도사의 술법에 의해 충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물이다. 조걸은 형인 조학의 반란에 맞서기도 하고, 위기에 빠진 황후를 구하기도 하는 등 충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더우기 마지막 부분에서 조학을 참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은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지상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걸은 소설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조걸의 개심과정은 「옹고집전」과 같이 <진가쟁주> 유형의 설화로 이뤄져 있다. 이 삽화에서 가짜는 두 번 등장하는데, 첫번째는 도사가 보낸 구미호가 소씨부인으로 변한 것이고, 두번째는 구미호가 만들어낸 가짜 조걸이다. 진가쟁주 유형은 두번째에서 두드러지지만, 가짜가 또 다른 가짜를 만든다는 서사적 변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왕능은 탄생하여 성장하고 난 후 두 번 출행한다. 첫번째는 세상을 돌아본다는 명분으로 나선 것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고, 두번째는 태자를 도와 명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번째 출행까지는 왕능이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라면, 두번째 출행을 통해 왕능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왕능의 서사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즉, 무장으로서의 성장과정과 전공을 세워 입신양명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왕능은 자신의 武裝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즉, 처음 구의산에서 나오기 전에는 대사가 용마를 불러낸다. 왕능은 그 용마를 타고 출행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이때 거북이가 변한 신검을 천세웅에게 전달받는다. 그리고 두번째 출행하여 울지덕을 도와주고 그의 은신갑을 얻음으로써 무장을 완전히 갖추어 동시에 장군으로서의 면모도 완전하게 되고 있다. 마지막 은신갑을 얻는 과정은 <구룡담> 유형의 설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삽화를 통해 왕능은 장군으로서의 면모가 완성되고 있다. 다른 고전소설에 비해 무장을 완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화를 이용하여 삽화가 구성됨으로써 왕능이 하늘이 내린 존재라는 신이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왕능전』의 전체 삽화에서 주요한 부분에 설화가 이용되고 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설화를 서사구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화들이 작품에 사용되는 매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고전서사의 확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갖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왕능전」의 설화 수용양상

「왕능전」이 다른 소설들에 비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구비설화의 변용을 통한 서사의 확장이라는 점이다. 소설의 형성에 구비설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화소차원의 것이거나, 유형 차원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소설들에서는 구비설화가 직접적으로 차용되는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왕능전」에는 구비설화가 변이 과정을 거쳐서 서사진행에 참여하고 있다.

1) 구룡담救龍談

우리 서사문학에서 용은 세 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신성한 존재로서의 용, 악독한 존재로서의 용, 그리고 연약한 신격으로서의 용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분별되어 전승되기도 하고, 세 속성이 공존하기도 한다. 현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의 용은 서사에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용이 신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서사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용이 완전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미완의 존재일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악한 존재로 돌변하기도 한다. 승천하지 못한 용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천년 동안 수도하여 드디어 승천하게 되었으나 인간이 내뱉은 ‘용이 승천한다’는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용은 승천하지 못하고 만다. 그 결과 슬픔에 잠겨 지내거나, ‘깡철이’가 되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존재가 되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용과 달리 애초부터 연약한 용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용과의 경쟁에서 수세에 몰려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은 『삼국유사』 제2 기이紀異편 ‘진성여왕과 거타지眞聖女大王 居陋知’條에 실려있는 거타지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논의⁹⁾가 있어왔다. 거타지 이야기에서 문제는 매일 해뜰무렵이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라니경을 외워서 용의 가슴을 잡아먹는 사미승이다.¹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활 잘 쏘는 이가 활로 제거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대한 답례로 용왕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¹¹⁾ 즉, 서해용왕과 사미승(여우)의 대립에서 처음에는 사미승이 절대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나 거타지가 이에 개입함으로써 사미승(여우)은 패배하고 서해용왕이 구명을 당하여 중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즉 거타지는 양자의 대결에서 선한 편에서 중재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타지의 모습은 작제전 이야기에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 기왕의 연구들에서 작제전 이야기는 첫째, 삼국유사 <거타지>조 구조를 근간으로 용녀교혼설화, 금기설화 등을 첨가시키고 <동명신화>에서 유리왕의 행동궤적을 반영한 것으로 둘째, 신성성을 보증하는 상징물로 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셋째, 이미 정치적으로 위기가 고조된 고려 왕실

9) 金文泰, 『三國遺事』所載‘龍’傳承 研究: 敘述構造와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成均館大 大學院, 1991.

김열규, 용녀전승과 재생주지, 國文學論集, 4,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0.

신동익, 거타지 설화 소고: 용구출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陸士論文集, 26, 陸軍士官學校, 1984.

申蓮雨, 『三國遺事』居陀知 說話의 神話的 屬性, 論文集, 48, 서울産業大學校, 1998.

尹俊弼, 地下國大賊退治說話의 變形樣相 研究: 說話와 小說을 중심으로, 全北大 教育大學院, 1993.

이상훈, 결연몽의 무교성 연구: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東亞大 教育大學院, 1979.

李載杰, 韓國說話와 道仙思想, 세종대 대학원, 1984.

10) 我是西海若. 每一沙彌, 日出之時, 從天而降. 言甬陁羅尼. 三繞此池. 我之夫婦子孫皆浮水上. 沙彌取吾子孫肝腸. 食之盡矣. 唯存吾夫婦與一女爾.

11) 沙彌果來. 言甬呪如前. 欲取老龍肝. 時居陁射之, 中沙彌, 卽變老狐. 墜地而斃. 於是老人出而謝曰. 受公之賜. 全我性命. 請以女子妻之.

에 용손(龍孫)으로서의 신성과 위엄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한 이야기로 설명되었다.¹²⁾ 작제건 이야기에서 문제는 서해용왕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처로 가장한 늙은 여우이다. 이를 활로 쏘아 제거하는 것이다. 작제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그 보답으로 자손이 3대가 지나서 동쪽 왕이 된다는 예언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의 원으로 용녀와 결혼을 한다.

두 이야기는 모두 신화적인 것으로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보답이 결혼에서 왕권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는 고려 건국신화로 차용되면서 생긴 변이일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제건은 스스로 용녀와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 결말만 다를 뿐 두 이야기는 거의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민담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룡 황룡의 싸움>(한국구비문학대계 7-9, 예안면 설화 19, 838~839쪽.)이다.

어떤 거 행인이 그 안개는 자옥한데. 산내골 용천에 내려 가다이께네, 어예 돼 고만[큰 소리로 빠르게]청룡 황룡이 고마 구비를 치는데 그 용초에 마구 물이 뒤끓고 머 청룡이 내려갔다, 황룡이 내려갔다 작단을 쳐 올려. [본래 소리로] 안개는 찌고 머 가랑비는 오고, 이 노인이 짝지(지팡이)를 잡고 저 저 구경을 하다이께네, 어떤 새파란 신부녀가 딱 나오디,

“저-, 참말 어른, 날 원조를 좀 해 달라”고.

“뭘 원조를 해 달라 그노.”

“어예든간에(어쨌든지) 시방 내가 드가가주고 싸움을 할 챔이(테니)황룡이 위로 올라오거덜랑[큰 소리로] 황룡이 진다꼬 소리를 막 백력글이 어예 몇 마디 질러주만.[본래 소리로] 그 게 이긴 후에는 평상 내가 그 보답을 하겠다”고.

12) 하은하, <작제건 이야기>의 감상을 통한 자기서사 드러내기,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00쪽.

“그게 머 어레우나(어려우나)?”

그래 말이래. 그 신부녀가 그게 말하자면 첩이라꼬 드가 싸움을 드리하는 데 고만 황룡이 우로 올라 올 저(적에), 황룡이 진다꼬 소리를 지르이께네, 차마 뇌성벽력을 하디, 고마 그 앞을 탁! 차고 나가는데, 그 그,

신내골 용초에 터진 방구가 저 아래 영덕에 꺼짐.

그 그 세배를 그 직통 있는 근 데(그런 데) 가면, 방구 구부러진 자리가 안 죽도(아직도) 있구마는.

그래가주고설랑 황룡이 저가주고 희떡 자빠졌는데. 그래 청룡이 고마이거 가주고설랑, 그 또 사람으로 화해가지고 백배치사를 하고,

“그래 그 은혜를 어디까지 갚어 주겠다.”

고. 가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잘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싸움의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청룡과 황룡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결판이 나질 않고 있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에게 청룡이 자신의 원조를 부탁하고, 그 부탁을 이행한 행인에 의해 대결은 끝난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행인은 후손이 잘됐다. 이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용의 힘을 제한하는 권능으로 작용한다는 관념인 것이다. 이는 승천하지 못한 용 이야기에 도 등장하는 화소이다. 이처럼 작제건이나 거타지 이야기와는 일견 다른 모습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즉, ‘두 신적 존재의 대결 - 인간의 중재 - 일방의 승리 - 보상’라는 서사구조의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중재하는 인간은 주민이 아닌 과객(過客)이다. 지나가는 길손이 둘의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력의 개입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또한 도움의 보답은 후손이 잘되는 것이라고 하여, 작제건 이야기와 통하고 있다.

이러한 구비서사물은 그 자체로 전승되기도 하는 한편, 기록서사물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단적인 예를 「왕능전」에서 찾을 수 있다. 왕능이 출정

하여 갑옷을 얻는 장면에서 구룡담의 전통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삽화의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왕능은 아버지를 찾은 후 국가를 위하여 출전을 한다.
2. 태자가 있는 서쪽으로 향하던 중 무림산에 이르러 두 장수의 싸움을 목격한다.
3. 그날 밤 울지덕이라는 장수가 와서 싸움을 도와달라고 청한다.
4. 다음날 울지덕을 도와 동철을 물리친다.
5. 바위 밑에 있는 순금갑주를 얻는다.

위 삽화를 구룡담의 서사구조와 비교하면 동일한 양상으로 대입됨을 알 수 있다. 즉,

두 신격의 대결 - 울지덕과 동철의 대결
승부가 나지 않음 - 승부가 나지 않음
행인의 개입 - 왕능의 개입
악한 퇴치 - 동철 퇴치
보상 - 순금갑주

와 같은 상응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왕능이 갑옷을 얻는 삽화는 구룡담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왕능은 구룡담의 궁사가 그러하듯 울지덕과 동철보다 우월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가 된다. 둘의 끝나지 않는 대결에 중지부를 찍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울지덕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장은 울지덕일넌니, 고힌니 빅골을 죽히고 이 산의 거혁엿삼던니, 일견

구의산 신영이 세존의 명을 바다 소장게 분부하오시되, ‘명일은 더명 더원슈 넘하실 거신이 소장의 음신갑을 너여주라’ 하시거날, 소장이 청영하고 왕원슈 오시기를 기다리던이, 구봉산 동철리 그 산 신영의 말을 바다 갑오슬 아셔가라 흐거날, 동철리 구리쇠 남아요 무쇠 몸이라. 기운니 저린호여 세상의 당할 지 읍난니, 소장이 여러날 싸와 성부를 결단치 못하넛난니, 봉망 원슈 난 싸흠의 장간 그드러 류시면 돌철의 머리를 버히고 갑슈를 전하리니다.¹³⁾

이를 통해 왕능이 갖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확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후에 벌어지는 동철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예고하는 복선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진가쟁주담眞假爭主談

『왕능전』에 개입되어 있는 또 다른 구비서사물은 진가쟁주담¹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래옥의 연구를 필두로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진가쟁주담과 『옹고집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었다. 최근에는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진가쟁주담 자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느낌이다. 주로 성적인 욕망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진가쟁주담을 이해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것에 과도한 해석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해가 주를 이룬데는 역시 이 이야기가 ‘쥐쫓’이라는 성적인 표현이 정면에 제시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여인이

13) 『왕능전』, 88-89쪽.

14) ‘쥐 쫓도 모른다는 유래’라는 유형명칭도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조사된 각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유형의 명칭은 ‘쥐 번신담’ 또는 ‘진가쟁주담’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자는 소재적인 차원의 명칭이고, 후자는 주제론적인 차원이므로, 본고에서는 후자를 유형명칭으로 사용한다.

남편이 아닌 자를 남편으로 알고 관계했다는 추정을 공유한데서 오는 성적 상상력의 작동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유형의 설화는 그 자체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옹고집전」의 근원설화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옹고집전」은 악인의 개과천선담으로 윤리적인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다.¹⁵⁾ 성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설화가 윤리, 그것도 유교윤리와 결합하여 소설로 발전했다는 것은 두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세계를 생각할 때 선뜻 그 연관을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화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가쟁주담의 일반적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진짜와 똑같은 가짜가 출현한다.
2. 시험을 벌인 결과 진짜가 축출된다.
3. 진짜가 온갖 고생(모험)을 한다.
4. 해결책을 갖고 돌아와서 가짜를 축출한다.

가짜가 출현하게 된 원인은 손톱, 세수한 물, 밥, 화장실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인간 자신 또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가짜는 진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을 공유하면서 인간으로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성의 전이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는 진짜와 동일하지만 애초부터 다른 존재에 덧씌워진 존재라는 한계를 갖는다. 본래의 습성 또는

15) 「왕능전」은 이런 면에서 「옹고집전」과 매우 닮아있는 작품이기에 영향관계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창작연대를 확정할 수 없기에 그러한 관계설정은 자칫 무리한 선후관계를 만들어 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설화와의 관련을 살피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작품형성의 동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또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변신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가짜는 전혀 새로운 가짜가 아닌 진짜의 분신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진짜의 신체 일부 또는 배설물을 통해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는 말 그대로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일부로서의 가짜가 된다. 또한 속성을 매개하는 매체는 진짜가 버린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짜는 진짜가 버린 것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을 그렇게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즉, 신체의 일부는 자신의 일부로서 버릴 때도 주의해서 버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가짜의 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며, 나아가 참된 자아를 찾는다는 유교의 修身과도 맥이 닿는 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진가쟁주담은 성적인 낚싯거림이나 연상물이 아닌 자아의 보존이라는 좀 더 관념적인 주제를 내포한 서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본다면, 진가쟁주담이 「옹고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접속점이 보인다. 「옹고집전」이 표방하는 改過遷善이라는 주제는 거짓된 마음이 가려놓은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제에 내포된 관념이 동일한 범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에 서사의 변용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옹고집전」과 같이 허상을 동원한 징벌과 각성과정은 「왕능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악한이었던 조걸이 개과천선하는 삽화가 그것이다. 이 부분의 서사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조걸이 소씨를 납치하려 한다.
2. 도승이 여우로 가짜 소씨를 만들어 납치되게 한다.

3. 가짜 소씨가 작변하여 조걸이 딸과 동침하고, 처 유씨를 소박한다.
4. 어느날 조걸과 똑같은 조걸이 등장한다.
5. 여러가지 수단을 써 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6. 송사시힘으로 가짜가 진짜로 오판된다.
7. 진짜 조걸이 죽을 고생을 한다.
8. 진짜 조걸이 과오를 깨닫고 개심하자 가짜가 사라진다.

서사단락 1.-3.은 조걸이 극단적인 악행을 범하게 함으로써, 조걸에 대한 평판을 최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후에 이뤄지는 개과와 그 이후의 인물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진가쟁주담에 해당하는 부분은 4.-8. 단락이다. 민담과 비교했을 때, 「왕능전」에는 세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가짜의 등장이 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옹고집전」과 상통하는 부분으로 민담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허구성이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설정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손톱을 먹고 쥐가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도술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더 현실적인 설정인 것이다. 둘째, 판별하는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행위라는 점이다. 家中諸物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고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역시 소설적 합리성에 기인한 설정이라 하겠다. 즉, 남성인 가장에게 여성의 공간인 가중제물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이로써 남성의 세계에 관한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걸의 개심은 이뤄지고 있다.¹⁶⁾ 그리고 이로써 조걸이

16) 도티 한 계교를 생각해고 가로디,

“이제 두 자식 동헌의 안고 빅성으로 송사를 시키면, 너 맛당이 우리 샷또를 가리리 로다.”

하고, 두 자사를 동헌의 안치고 송민을 들나 분부한니, 송민이 드러와 고희여 왈,
“소년 농우을 두어삼던니 중터하다가 결각되옵기로 알외나이다”

가짜로 오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거의 죄과에 합당한 징벌을 경험해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셋째, 조걸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한 악행을 그대로 경험하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자신의 과오를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각각을 중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한인 조걸은 충신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즉, 가짜 마음에 가려져있던 참된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이상적인 인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걸은 후에 국난을 평정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상과 같은 조걸의 인물변화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적인 이상의 실현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5. 민담차용의 원리

『왕능전』에 사용된 설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룡담> 유형과 <진가쟁주담> 유형이었다. 각각은 그 서사적 관계망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서 모두 상당한 변개가 이뤄져서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우리 서사에서 중요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이다.

<구룡담>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이야기이다. ‘용의 싸움-인간

호거날, 실자시 심중의 헤오디,

‘니 일즉 빅성을 악한 형벌노 지물을 과이[과이] 탐흐엿던니, 호날리 무니 여기사 이런 변을 당흐니, 니 웃지 다시 그릇 고사를 체결하리요.’(32-33쪽)

17) (조걸이) 무슈니 이결하거늘, 그제야 가자시 웃고, 도걸를 당의 울여 안치고, 좌편 팔의 여달 글자를 사겨씨되 ‘사군갈충하고 시민여자라’ 호고, 닌흐여 구귀의 오던니, 문득 더풍이 이러나며 사방으로 거문 구름이 두르며 뇌성병역 요란하고 무지기 동으로 이러나더이, 구미호 구름얼 헛치고 무지기를 타고 올라간지르(36쪽)

의 도움-승부결정-인간에 대한 보상'이 그것이다. 싸움은 터를 두고 벌이는 것으로서, 일방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거나,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 대결에서 열세에 놓인 용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의뢰를 받는 인간은 궁수가 대부분으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룡담>의 일반적 서사진행은 다음과 같다.

1. 한 곳에 터를 잡고 사는 용이 있다.
2. 그 터를 다른 용이 빼앗고자 한다.
3. 승부가 나지 않는다.
- 3'. 당할 수가 없다.
4. 궁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5. 궁사가 침입한 용을 퇴치한다.
6. 용이 보답으로 보물을 준다.

이러한 서사는 표면적으로 용과 용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해결이 결국에 지켜낸 것은 애초에 자리잡고 있던 '용'과 그 용이 주권을 행사하는 '터'이다. 즉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용'과 '터'가 주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 용과 터가 온전할 때 세상은 질서가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궁사가 구한 것은 용이지만 결국 그 터를 구한 것이고, 그것은 그 지역을 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궁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터전을 구한 영웅이 되는 것이다.

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력과 관련을 맺는다. 그렇다면 용과 터와 사람들 그리고 궁사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용-권력, 터-조직, 사람들-조직의 성원, 궁사-외부인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장시키고 보면 <구룡담>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1. 어떤 조직이 있다.
2. 다른 권력이 침입하여 기존 권력을 위협한다.
3. 외부인이 침입한 권력을 퇴치한다.
4. 조직이 안정된다.

이때 조직은 국가일 수도 있고, 씨족일 수도 있다. 용이 권력 중에서도 왕권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조직은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침입하는 권력은 외적 혹은 반란이 된다. 따라서 용의 싸움은 외적의 침입 또는 반란으로 국가가 위태해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궁사로 표상되는 武將이 등장한다. 여러 자료에서 ‘사냥꾼’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활을 잘 쏜다는 것을 대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활을 잘 쏜다’리는 것이다. 즉, 武將로서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도움을 의뢰받는 인물은 뛰어난 장수인 것이다. 국가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의 부름을 받고 장수가 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수는 외적을 물리쳐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용이 보답으로 보물을 주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뤄지는 논공행상이다.

이렇게 보면 <구룡담>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이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왕권을 수호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왕조신화에 차용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상신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가로 변이된 것이다. 또한 위에서 행한 해석은 영웅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군담삽화이다. 여기에 수련의 과정과 주인공의 혈통을 첨가하면 한 편의 고전소설로 충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 이야기가 소설에 차용될 수 있었던 단초인 것이다. 결국 <救龍談>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내재한 의미의 보수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왕능전」에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진가쟁주담>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修身의 서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인물이 이상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손발톱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와 같은 금기가 주체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즉, 진가쟁주담은 손발톱을 함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시킴으로써, 금기위반의 무서움을 명료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악한인 조걸은 참된 마음을 잃고 있는 상태이다. 그것은 ‘손발톱을 함부로 버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 결과 허상이 출현하여 조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과정은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데, ‘달초하기-코에 잿물넣기-엄나무 발에 싸서 굴리기-기름 솔에 넣기’의 순서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허상에 의해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조걸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순간 허상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신(修身)의 과정인 것이다. 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금기를 어기는 행위 - 조걸의 악행
 허상의 출현 - 가짜 조걸의 등장
 허상의 발호 - 극단적 악행, 생명의 위협
 허상의 퇴출 - 조걸의 개심

이상을 종합하면 <구룡담>과 <진가쟁주담>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소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구룡담>은 기존 왕권의 옹호 및 회복이라는 보수적인 주체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영웅소설인 「왕

능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작품의 주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진가쟁주담>은 인물의 개심삽화를 구성함으로써 유교의 수신원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구룡담>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설화는 소설이 지행하는 이념과 주제에 부합함으로써 소설형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즉, 장르를 초월하여, 서사적인 지향의 동일함이 서사의 상호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반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왕능전』이 갖고 있는 서사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능전』은 잘 알려진 소설은 아니다. 그렇지만 편년체 서술방식의 사용,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한 사실성을 강조 등 소설로서의 의미가 뚜렷한 작품이다. 또한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설화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진다는 면에서 특징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설화가 소설의 형성에 참여할 때 삽화적인 차원에서 설화의 본래 골격이 유지되는 경우와, 변용을 거치는 경우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룡담> 유형의 경우에는 설화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왕능의 무구획득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진가쟁주> 유형은 가짜 퇴치와 교훈이라는 골격이 가짜 퇴치와 개심이라는 구조로 변용되어 조결의 개심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된 설화들은 공통적으로 유교적인 질서에 충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구룡담>은 기존 권력의 옹호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진가쟁주>는 眞假의 대립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진가쟁주>

유형의 양면성은 개심과 연결되면서 수신이라는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주제의식과 확장은 「왕능전 이 내세우는 혈육간의 정을 초월할 정도의 절대적인 충성과 동궐의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왕능전」에 <구룡담> 유형과 <진가쟁주> 유형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인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왕능전」은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한고조의 사적을 골격으로 하여 왕능의 영웅적인 일대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상당한 크기의 서사를 담고있다.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과 거의 모든 삽화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결성 등 소설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작품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광순, 「『순금전』의 형성배경과 구조적 특징」, <고소설연구> 6, 고소설연구회, 1998, 123-157쪽.
- 金文泰, 『三國遺事』所載 ‘龍’ 傳承 研究 : 敘述構造와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成均館大 大學院, 1991, 1-158쪽.
- 김열규, 용녀전승과 재생주지, 國文學論集, 4,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0, 47-60쪽.
- 김재용, 「<왕능전>의 영웅소설적 성격과 의미」, <어문학>, 89집, 한국어문학회, 2005, 131-155쪽.
- 박진아, 「진가확인구조의 양상과 그 역할 연구」,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179-210.
- 방유리나, 「<쥐쫓도 모른다>에 나타난 부부의 성(性)문제와 관계의 재정립」, <문학치료연구> 8,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155-177.
- 신동의, 거타지 설화 소고: 용구출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陸士論文集, 26, 陸軍士

- 官學校, 1984, 1-12쪽.
- 申蓮雨, 「三國遺事」居陀知說話의 神話的 屬性, 論文集, 48, 서울産業大學校, 1998, 53-64쪽.
-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고소설학회, 2007, 123-151.
- 尹俊弼, 地下國大賊退治說話의 變形樣相 研究 : 說話와 小說을 중심으로, 全 北大 教育大學院, 1993, 1-48쪽.
-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고소설학회, 2004, 225-250.
- 이상훈, 「결연몽의 무교성 연구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東亞大 教育大學院, 1979, 1-46쪽.
- 이윤경, 「'손없는 색시' 설화의 소설화와 그 의미」, <돈암어문학> 14, 돈암어문학 회, 2001, 189-218쪽.
- 李載杰, 韓國說話와 道仙思想, 세종대 대학원, 1984, 1-92쪽.
- 조희웅, 「구비설화·문헌설화·고전소설의 관계 : 『임석재전집 : 한국구전설화』 수록 자료를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제20집, 비교민속학회, 2001, 37-52쪽.
- 조희웅, 「손없는 색시(AT107)考」, 『수여 성기열박사 환갑기념 논총』, 인하대출판부, 1989.
- 주중연, 『한독민담 비교연구』, 집문당, 1999, 1-266쪽.
- 하은하, <작제건 이야기>의 감상을 통한 자기서사 드러내기, <문학치료연구>, 제 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99-123쪽.

ABSTRACT

A Study on *Wang nung Jeon*'s Receptivity from Folktales

Noh, Young-Keun

In *Wang nung Jeon*, principal episode was made with folktales. *Gu ryong dam* type(AT.738) and *Jin ga jaing ju* type is that. These are making a story in different dimensions. Former's subject is protect and recover of royal authority. It is common with *Wang nung Jeon*'s subject. So, the former is act in subjective dimension. The latter forming a penitent episode. With this, It configure a Confucian's principle of moral culture in literary form. Both are coincidence with *Wang nung Jeon*'s subject and idea and it make them to take a part in *Wang nung Jeon*. In conclusion, transcend a Genre, equality of narrative direction make a possibility of narrative usefulness.

Key Words Wang nung Jeon, Guryongdam, Jingajaingju, receptivity, narrative, narrative usefulness, configure, AT.738

논문투고일 : 2009. 6. 2
심사완료일 : 2009. 6. 9
게재확정일 : 2009. 6. 16